INSIDE YTN

2016. vol. 123

더 나은 내일을 전합니다

Yes! Top News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의 뉴스를 만나는 길은
그리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학자가
9년 동안 한결같이 꼽은
가장 공정한 뉴스,
YTN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최고의 뉴스 채널,
YTN입니다.

YTN
Yes! Top News

CONTENTS

07 July - 08 Aug 2016 / vol.123

IN

In Newsquare
"YTN, 넌 이름이 뭐니?" | 기정훈 04
서울의 상징 〈남산서울타워〉 공식 통합 홈페이지 개편 | 김정기 06
東北亞夢 동북아의 꿈 | 백재연 08

Exclusive Now
정운호 연속보도로 존재감 다시 확인한 YTN | 한연희 10
"추가 제보를 받습니다." | 박조은 12

WorldWide YTN
파독 간호사 50주년 특집 취재기 – 용기는 무기, 열정은 특기 | 박선영 14

이 방송 궁금하다
당신의 전성기를 찾아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 김혜민 16
YTN 1분 드라마 〈병맛날씨〉 더 비기닝 | 김수현 18

청년 창업 〈런웨이〉 방송 200회 특별 기고
숫자에 담은 〈런웨이〉 | 현병수 20

지국은 지금 _ 대전지국
세상의 중심에서 열정을 외치다! | 이상곤 22

부서탐방 _ 인사팀
결국은 사람이다! | 김솔희 24

5월, 6월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25

SIDE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_ 홍경택 작가
26 홍경한 | 건축적 질서 속 혼돈과 욕망의 세계

앵커의 변신 _ 안보라 앵커
28 최보영 |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_ 하이든 현악 사중주 제77번 C장조 '황제'
30 유석현 | 86·88 꿈나무, 그리고 서울올림픽

낭만인 탐구 _ 이강규
32 최재용 | '흐르는 강물처럼' '낚시는 강규처럼'

최광희의 News In Cinema _ 뉴스룸
34 최광희 | 속보보다 중요한 뉴스의 가치

누구라도 영웅들 _ 생명을 구한 백의의 천사들
36 최영아 | 쓰러진 남성의 심장을 뛰게 하라! – 간호학도 박세현
열혈 간호사, 불타는 버스로 뛰어들다! – 간호사 김혜민

38 **YTN 이모저모**

표지 홍경택 作 〈연필그림1 (Pens 1) 259 x 581cm oil on canvas 1995 ~ 1998

홍경택의 '연필' 내부엔 그의 화사(畵史)를 필연적으로 관통하는 존재성에 대한 고민이 묻어있다. 산발하는 '연필'이나 '여섯 개의 하늘'에서 마냥 둥글게 뭉쳐진 덩어리로서의 '연필'이라는 시각이미지에 한정된 결론이 다가 아닌 '연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우린 무엇을 남기며, 또 얻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 연필이 지닌 이미지와 비이미지 간 관계처럼 화려함 뒤 보이지 않는 허무함을 말하고 있다는 게 옳은 해석이다. 물론 욕망을 풀어내는 과정과 그 끝에 도달했을 때의 무력감, 진정한 인간상은 무엇이고 어디서 근본적인 자아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자답도 이 연필 시리즈가 가리키는 하나의 종착지이다.

발행인 조준희 편집장 최재용(커뮤니케이션팀) 03926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T 02.398.8000 제보 02.398.8585 디자인·인쇄제작 아이아트플러스 02.2272.9807

기정훈 팀장 | 시청자센터 커뮤니케이션팀

한국 최고 뉴스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아서

"YTN, 넌 이름이 뭐니?"

'아침 이슬'을 부른 가수, 한국 포크 음악의 대모 양희은 씨를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름 묻는 게 특기인 아줌마 가수'로 떠올린다고 한다. 많은 연예인들이 TV에 나와 개인기라며, 비음 섞인 목소리의 '양희은 성대모사'를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넌~ 이름이 뭐니?"

YTN에 견학 오는 학생들도 종종 묻는다. 어떨 땐 둘이 함께 와서 '내기'라며 묻기도 한다. "YTN이 무엇의 약자예요?" 우리에게 쉬운 얘기지만, 멋지게 답하려면 고민스럽기 마련이다.

벌써 2년 하고도 몇 달이 훌쩍 지났다. YTN이 상암동으로 이사 온 지. 새 집과 새 로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면서 우린, 그렇게 외쳤었다.

It's Your Turn Now

이제 우리 차례라고. 우리만 새로워지면 된다고.

그 후, 정말 많은 게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다.

1995년, YTN이 방송을 시작하기도 했고, 인터넷(월드와이드웹)이 막 소개되던 바로 그 해, IT 담당기자였던 난 한동안 후이즈(whois) 서비스를 뒤졌었다. 회사 도메인을 개인적으로라도 확보해 놓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인기 있는 닷컴, 즉 ytn.com은 팔려나간 뒤였고, 주인은 북유럽 어느 나라의 Yellow Turtle Network 이란 회사였다. '노란 거북이 네트워크'. 크지 않은 IT 회사 같아 혹시 팔지 않을까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은 없었다. 다음해 우리는 ytn.co.kr 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두음어 찾기(acronym finder)'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YTN은 모두 6가지 말의 두음어로 검색된다. 핀란드의 '고위관리 협의체'와 말레이시아의 '국가 에너지 재단'이 같은 두음 YTN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옛 이름도 거기 있고, 또 한 때 썼던 슬로건, 'Your True Network'도 소개되고 있다. 6개 중 2개가 우리 거다. 20여 년 전 도메인을 선점했던 '노란 거북이'는 찾을 수가 없었다.

YTN의 첫 이름은 연합TV뉴스 (Yonhap TV News)였다. 몇 년 못 가 내다버린 이름이라 기억하는 이들이 신기할 수준이지만, 첫 기억은 언제나 강렬한가 보다. 게다가 요즘엔 일부러 헷갈리기를 바라는 회사까지 생기다보니, 시청자들의 혼란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은 것은 아마도 'Yesterday, Tomorrow, Now' 인 듯하다. 과거와 미래, 현재를 보도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었을 게다. 외국 사이트에도 소개된, 'Your True Network'도 꽤나 인기 있었다.

요즘 지상파의 한 개그 프로그램은, 모든 말을 줄여 쓰는 아이들 버릇을 개그 소재로 삼고 있다. 이른바 '줄임말 덕후(마니아)'다. '통사'(통역사)가 없으면 웬만한 대화조차 되지 않는다. 기상천외한 줄임말이 허탈한 웃음을 곧잘 자아낸다. 이 개그는 반전이 재미있다. "닥쳐" "닥쳐는 무슨 말을 줄인 겁니까?" "닥쳐는 그냥 '닥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줄임말을 풀어주는 통역에 모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허를 찌르는 개그 코드다.

YTN이 무엇의 약자일까? 정답은 YTN이다. IBM을 더 이상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으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SBS가 서울방송이 아닌 것처럼, YTN도 그냥 YTN이다. 주식회사 와이티엔. 공식적인 우리 이름이다.

그럼에도 우린 다시, 새로운 두음어를 만들어냈다. 정말 쉽고,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표현이다.

"Yes! Top News"

모두 다 해야 알파벳 열 자뿐인 단출한 표현이지만, 들을수록 기분 좋은 말이다. 내 것이지만 남이 더 많이 쓴다는 이름이기에, 우리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각오까지 새롭게 해주고 있다.

설명이 필요 없다. 한국 최고의 뉴스채널 YTN, 우리 모두가 자랑스레 부르고 싶은 우리 이름이다. 9년 연속 가장 공정한 뉴스 YTN,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 YTN, 가장 뉴스다운 뉴스 YTN. 물론 자만할 수 없다.

누구나 우리에게 "Yes! Top News, YTN"이라고 주저 없이 불러주는 그 때, 한국 뉴스를 이끄는 최고 뉴스채널 YTN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다른 뉴스들에게 거침없이 외칠 것이다.

"Ye, Stop News!"
("자네, 뉴스 그만하게!")

공식 통합 홈페이지 개편

김정기 과장 | 타워사업국 타워사업팀

작년 12월, 40년 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서울타워 본관동'이 새롭게 상업시설로 리뉴얼 되었다. 다양한 외식거리,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서울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서울타워 플라자' 오픈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올해 초 YTN에 입사했다. 서울타워의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서울타워 본관동'이 '서울타워 플라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국내외 관람객에게 쉽게 알리는 것이 내 업무인 것이다.

입사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홈페이지'였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CJ에서 전망대 홈페이지로 운영 중인 'N서울타워'가 보일 뿐 YTN이 운영하는 '서울타워' 홈페이지는 찾기가 어려웠다. '왜 우리 홈페이지는 보기가 어렵지?'란 의문이 들것이다. 'YTN 서울타워' 홈페이지는 2000년 초반에 유행하던 '비반응형 플래시 홈페이지' 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바일 구현이 안 되며 홈페이지가 무거워서 접속이 힘들고 다양한 웹 브라우저 호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홈페이지를 모바일에서는 볼 수 없고, 디자인 역시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홈페이지 개편이었다.

마침 회사에서도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홈페이지 리뉴얼 시작을 준비 중이었다.

리뉴얼에 앞서 가장 먼저 홈페이지 이름을 놓고 고민했다. 브랜딩의 중요한 척도인 홈페이지 이름은 신중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차례 회의 끝에 홈페이지 이름을 '남산의 서울타워', 즉 '남산서울타워'로 정했다. '남산서울타워'는 이번에 리뉴얼한 '서울타워플라자'와 전망대를 운영하는 CJ홈페이지인 'N서울타워'의 '어머니격 홈페이지'인 셈이다. 리뉴얼한 '서울타워 본관동'만을 위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서울타워' 전체를 설명하는 홈페이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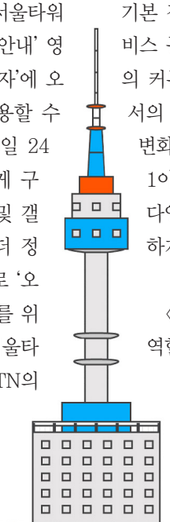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홈페이지의 형태를 결정하였다. 최신 트렌드인 '반응형 웹 홈페이지' 로의 구현이다. 모바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웹 브라우저 호환은 물론 운영관리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남산서울타워〉 홈페이지는 크게 다섯 가지 메뉴로 구분이 된다. 남산서울타워 소개 / 남산투어 가이드 / 매장안내 / 미디어센터 / 오시는 길이다. '남산서울타워 소개'는 타워 연혁과 '세계 거탑 연맹'에 소속된 나라별 타워 이야기 등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산투어 가이드'는 커플 데이트 코스, 가족 단위 코스, 힐링 코스, 라이딩 코스등 남산을 방문하는 타깃(target) 중심의 콘텐츠로, 또한 남산서울타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들도 담고 있다. '매장안내' 영역의 경우 N서울타워 매장 안내 외 '서울타워플라자'에 오픈된 외식업종 안내가 노출되며, 각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정보도 담고 있다. '미디어센터'는 365일 24시간 남산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경치를 볼 수 있게 구성된 'LIVE 파노라마'와 남산서울타워 홍보 영상 및 갤러리로 구성됐고, 남산 관련 YTN뉴스 소식과 웨더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끝으로 '오시는 길'은 도보 이용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성했다. 유저(관람객) 중심의 콘텐츠와 남산서울타워 정보성 콘텐츠의 비중을 적절히 섞고 거기에 YTN의 특징인 24시간 방송의 콘셉트를 살짝 차용한 'LIVE 파노라마' 등, 일반 관람객에게 호감을 줄 만한 콘텐츠들로 준비했다.

홈페이지 개편은 YTN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우선 나를 믿고 전폭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타워사업팀 최유석 팀장을 비롯해, 전체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결정지어 주신 화면 R&D 범희철 부국장, LIVE 파노라마 카메라 설치에 큰 도움을 주신 기술관리팀 조상헌 부장과 이경준 차장,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홈페이지에 사용할 이미지를 촬영해 주신 커뮤니케이션팀 최재용 차장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에 손과 발이 돼주신 YTN PLUS 모바일PJ팀 서정호 팀장, 이은진 대리, 미디어전략팀 윤미영 팀장, 김효신 대리, 기술에 이계봉 팀장이 없었더라면 통합 홈페이지 개편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과 비교해 본다면 이런 부서간 공조 문화가 YTN의 가장 큰 무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홈페이지는 기업과 브랜드의 얼굴이다. 홈페이지는 온라인-오프라인이라는 개념을 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본 장치이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나아가 유저(관람객)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채널 공간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단으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시대가 변하면 홈페이지도 함께 변화한다. 이번 〈남산서울타워〉 홈페이지 리뉴얼은 STEP 1이다. 향후 보다 다채로운 유형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사업군을 시작하면 리뉴얼 STEP 2, 3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남산서울타워〉가 서울의 상징, 대한민국 랜드마크의 역할을 지속하려면 그래야만 할 것이다.



東北亞夢
동북아의 꿈

백재연 외교행정관 | 외교부 동북아 3과

2014년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언론에게 보낸 특별 기고에서 "꽃 한 송이가 피었다고 봄이 온 게 아니라, 온갖 꽃이 만발해야 비로소 봄이 왔다고 말할 수 있다(一花独放不是春, 百花齊放春满园)"라며 한중 양국 간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자고 밝혔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재 양국 간 인적 교류 규모는 1,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93년 수교 이래 최상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중 양국 외교부는 1995년부터 '한중 외교부 기자단 교류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양국 언론인들이 상호간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활발한 교류를 통한 언론인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중국 중앙 언론사뿐만 아니라 중국 인터넷 매체와 지방 언론 매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자들이 특별히 선발되어 한국을 방문했다. 특별히 고려하여 선발된 기자들이라는 말에 업무 담당자로서 어떤 일정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앞섰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기자단 방문 첫 일정이 이번 행사의 성공을 판가름할 중요한 잣대라는 생각에 첫 일정 방문지 선택에 고심을 했다.

과연 어떤 언론사가 한국 언론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떤 언론사가 기자단에게 좋은 인상 남겨줄 수 있을지 고민 끝에 한국 뉴스 언론의 선두주자 YTN을 방문하게 되었다. 대부분 한국 방문이 처음인 중국 기자들은 한국에서의 첫 일정에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상암동에 위치한 YTN 본사를 방문하였다.

YTN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된 중국 참가 기자단 신문사 로고가 새겨진 플래카드는 참가한 모든 기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 주었다. YTN이 세심하게 준비한 플래카드에서 참석한 기자들이 자신의 회사 로고를 볼 때마다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바로 이어진 YTN과 한국 기자단의 면담 시간에는 서로의 관심 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흡사 한중 회담장을 방불케 했다. 한중 관계가 깊어질수록 다양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양국 국민의 감성을 아우를 수 있는 한중 양국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중국 기자들은 취재가 아닌 방문객으로서 방송국을 와 본 경험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도 아닌 한국의 방송국을 견학하게 되어 매우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아직 중국에는 24시간 뉴스가 방송되는 채널이 없는 만큼 YTN이 짧은 시간 이룩한 놀라운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이후에 이어진 4박 5일간 일정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TV가 켜져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YTN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고, 기자들은 그때마다 저 뉴스 방송이 우리가 갔던 YTN이냐면서 놀라워했다. 비록 중국 기자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YTN이 한국 뉴스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첫 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연이은 광주와 부산 등 지방 일정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기자단을 진심으로 기쁘게 맞이하여 주셨고, 중국 기자들은 한국인들의 따뜻하고 열렬한 환대에 감동하며 중국에 돌아가면 다시 한 번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꼭 방문하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북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동력은 다양한 인적 교류를 통한 양국 국민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키워나가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양국 국민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양국 언론인의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2014년 7월 2일 ,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이 만나 동북아의 꿈으로 커졌으면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

한중 기자단 교류가 동북아의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양국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 번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시작을 이끌어준 YTN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편집자 주
중국기자단은 지난 5월 30일 YTN을 방문했고, 이 글은 최근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국제정세변화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운호 연속보도로 존재감 다시 확인한 YTN

최근에 와서는 그 의미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특히나 우리 회사에서는 더한 것 같지만, 원래 법조는 출입기자들이 꽤나 자부심을 갖고 출입하는 곳 중 하나다. 치열하고 꼼꼼한 취재 끝에 완성된 기사가 나갔을 때의 파급력과 뿌듯함은 말할 것도 없고, 큰 사안이 터졌을 때 얻어내는 작은 팩트 하나도 큰 기쁨을 준다.

한연희 기자 | 보도국 사회부

얼마 전까지 법조기자들이 전력투구할 만한 사건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지금은 전혀 다르다. 롯데, 대우조선해양, 정운호, 가습기 살균제, 진경준 등등 쫓아가기가 벅찰 정도다.) 포스코 수사가 흐지부지된 이후 검찰은 수사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고, 주요 재판들도 얼추 마무리된 상황이라 기자들 역시 몰입할 대상이 없었다. 그러다가 터진 정운호 사건은 기자들의 좋은 먹잇감이었다. (사실 다른 이슈가 있었더라면 이게 이 정도로 커졌을까 싶다.)

아무튼 애초 단순 폭행사건으로 시작됐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는 그렇게 별다른 이슈가 없던 법조 기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사건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폭로전이 이어졌는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후발대에 속했다.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도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는데 엄청난 취재력을 발휘한 이종원 선배의 활약으로, 몸을 일으키자마자, 정운호 측이 재판부를 상대로 룸살롱에서 로비를 했다는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다. 역시나 이종원 선배의 활약에 힘입어 핵심 브로커인 이민희가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배 중이었다는 사실, 또 이민희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친분이 있었고 홍 변호사 역시 이에 관여됐다는 사실 등을 줄줄이 보도했다. 또 이 보도들을 기점으로 단순 폭로전에 불과했던 '정운호 사건'은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변모하게 됐다. 이후 우리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체포 사실도 가장 먼저 전하는 등 여러 단독 보도를 이어왔고, 그 결과 지금은 연루된 사람 대부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단독인들 쉬울 때가 있겠냐마는 법조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단독 보도를 이어간다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다. 취재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한사람이 새로운 걸 취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티가 잘 안나서 그렇지 법조팀이 하루하루 막아내야 하는 데일리 뉴스가 의외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이 단독 취재를 하면 나머지 팀원들은 그 사람의 일을 나눠서 해야만 한다. 그런데 5월 인사 이후 우리 팀은–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법조 경험이 전무했고, 그나마 잔류 인원이었던 나조차도 법원만 출입을 해 온 상황이라서 검찰 취재는 걸음마 단계였다. 하나하나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냈다는 거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얻어낸 값진 성과라는 사실을 – '사내' 특종상 후기인 만큼– 한 번 강조해 본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독보도를 이어가는 데 상을 받은 법조팀원의 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최유정 변호사 체포'같은 경우 최종 확인은 법조팀에서 했지만, 최초 정보 제공자(?)는 지금 출산 휴가 중인 모 선배다. 출산 휴가 중에도 그런 정보를 획득(!) 하셨다는 점에서 선배가 정말로 존경스럽다. 물론 그 정보를 잘 살려서 단독을 이어간 우리 팀도 칭찬하고 싶다. 훌륭한 팀워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원래 이런 '깔대기' 발언을 정말 잘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듯 사보에 쓰는 '자랑스런 YTN상' 수상 후기 인만큼, 다른 데는 말할 수 없는 자화자찬을 조금 해보았다. 더불어 편한 자리라 생각하고 엄살도 좀 부려봤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고 있다는 점을 다른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만큼, 그보다 더, 최선을 다하며 '정운호 단독 연속보도'로 얻은 값진 존재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추가 제보를 받습니다"

박조은 기자 | 보도국 기획제작팀

4월 21일 밤 9시. YTN 상암동 사옥 4층 1스튜디오~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게 만든, 시작점이다.

지난 봄, 이해욱 대림산업 전 부회장의 수행기사 폭행이 만천하에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자, 나는 기업 오너 2, 3세들에게 당한 과거 '갑질 사건' 피해자를 추적하기로 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숨어버린 피해자들'. 항변도 한번 못해보고 당한 것에 분노를 견딜 수 없어서, 억울해서, 용기를 냈던 피해자들이지만, 놀랍게도 하나 같이 지금은 숨어 살고 있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기자로서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문제의 '회장님'들은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질 때만 기다렸다고 한다.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는 90도로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수긍할만한 처벌이 이뤄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결국 피해자들은 '고발자, 배신자'라는 낙인만 하나 더 찍혀, 주소와 전화번호 심지어 직업까지 바꾸고 말 그대로 숨어 살고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나는 갑의 횡포에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특히 끈질긴 추적 보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그러다 당시 국민신문고 총괄 책임자였던 김상우 국장의 제안으로 '갑의 횡포, 추가 제보를 받습니다' 라고 적은 대문짝만한 크기의 제보 자막을 생방송에서 여러 차례 내보냈다. S본부 '그것이 알고싶다' 느낌으로~. 그게 4월 21일이다.

솔직히 말해 갑의 횡포를 연속 취재하겠다는 작정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문제의 자막'이 나가자마자 기획제작팀 사무실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게시판과 신문고 전용 메일, 심지어 내 개인 메일로까지 제보가 왔다. 물론 내심 기대했던 어마어마(?)한 사회적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나같이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해서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요."로 시작하는 작은 억울함이었다. 하지만 그때 수화기 너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뭐랄까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졌다. 추가 제보 받는다고 생방송에서 자막까지 보내고 나니, 뭔가 사고 친 느낌도 들고… 결국 '그래, 딱 이번 한번만 갑의 횡포에 대한 보도를 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시작한 취재가 〈방산비리, 빗나간 표적 (5.19.방송)〉 이다.

내 메일 보관함 속에 있던 제보는 단 하나였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 추가 사례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 결과 범정부적 방산비리 척결 과정에서의 감사원, 방위사업청의 실적주의 혹은 보여주기 식 비리 수사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다. 감사원과 방위사업청이 한 방산 하청업체 물린 부당이득금 110억 원의 '부당함', 농민 대신 고추를 건조했다고 고춧가루 납품이 금지될 뻔한 전남 함평의 황당한 사연을 보도하자, 중앙, 동아일보를 포함해 주요 언론이 해당 내용을 다뤘고, 드디어 방위사업청이 함평 고춧가루에 대한 하자 처분을 취소했다.

두 번째 방송을 마치고, 다음 달에는 정말이지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른 주제를 다루려고 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가자 추가 제보가 밀려왔다. 그래서 만나게 된 제보자가 충남 당진의 퇴직자, 또 한 공군 호텔의 임차인이었다. 사실 앞서 방산 비리와 관련한 정부 기관의 횡포를 보도한 뒤, 이를 제보한 사람들이 이른바 괘씸죄로 -알게 모르게-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화도 나고 우울했던 때였다. 방송이 나갈 때만 해도 '잘못했습니다. 전부 시정하습니다'라며 두 손 두 발 다 들던 정부 기관들이, 방송이 끝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슬그머니 말을 바꾸려고도 했던 것이다. 나는 그래서 갑의 횡포 3탄에서는 최대한 해결까지 이뤄내자고 스스로 마음먹었다. 기획 과정에서부터 '시정시키고, 해결까지 이뤄낸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제목도 "갑질! 몰아내러 나간다~(6.16.방송)"로 정하고, 명창 박애리 씨가 각 취재 내용에 맞는 창을 불러 분위기를 달구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장치들도 준비했다. 그 결과 엄밀히 말해 가해자인 당진시의 최고 책임자, 김홍장 시장을 설득해 생방송에 출연시켰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체적인 시정 계획까지 받아냈다.

이제 벌써 7월이다. 내가 언제까지 갑의 횡포에 대한 보도를 이어갈 수 있을지 확신은 없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그래, 적어도 억울한 사람들이 전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신문고'가 되자.'

그러던 중 오늘도 회사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저… 여기 억울한 일 해결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요~"

파독 간호사 50주년 특집 취재기

용기는 무기, 열정은 특기

박선영 PD | 글로벌뉴스센터 해외방송팀

최근 방송된 YTN의 간호사 파독 50주년 특집 다큐 2편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독일로 간 천사-광수의 일기〉와 〈라인 강에서 찾은 미래-꿈은 이루어진다〉 2편으로 이루어진 특집 다큐에는 고단한 운명을 열정으로 개척해 의미 있는 삶으로 가꿔간 대한민국 '누나'들이 오늘날의 청춘에게 주는 용기가 담겨 있다.

1960~70년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독일행 비행기에 오른 파독 간호사들. 그녀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독일 병원에서 밤낮없이 일해 벌어들인 월급의 80~90%를 고국으로 송금했다. 그렇게 독일에서 흘린 땀과 눈물은 한국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됐다. 독일 병원에서 보낸 파독 간호사들의 인생 하루하루가 어느새 아마득한 50년 역사가 됐다. 파독 간호사 5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알려진 공식적인 파독 스토리가 아닌, 꽃다운 나이에 가족과의 생이별을 감수하며 독일로 간 그 시절 청춘들의 사연을 듣고 싶었다. 그런 생각으로 지난 5월 11일, 이제는 백발노인이 되어있을 파독 간호사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출발했다.

40여 명의 파독 간호사를 만나다!

2주간의 일정동안 우리는 40여 명의 파독 간호사들을 만났다. 아직 병동에 근무 중인 막내 파독 간호사부터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독일 전역에 흩어져 사는 파독 간호사들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꽤 힘들었다. 프랑크푸르트, 쾰른, 마인츠, 도르트문트, 뒤셀도르프, 레버쿠젠, 오버하우젠, 뮌스터, 베를린까지… 워낙 넓은 독일 땅에서 옆 동네로 이동하는 거리만 최소 2시간이 넘게 걸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난 파독 간호사들의 평균 연령은 70세. 대부분 20대에 독일에 건너갔으니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독일에서 산 세월이 더 긴 그녀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온 취재팀에게 "아이고… 나는 한국에서 누가 오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 하며 한걸음에 달려 나와 반겨줬다. 그녀들이 사는 집 역시 한국보다 더 한국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거실 벽 한쪽에는 고향생각이 날 때마다 그렸다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정원에는 가족이 그리울 때마다 심었다는 철쭉꽃과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인터뷰가 시작되면 파독 간호사들은 고국을 떠나온 50년 전으로 돌아갔다. "내 고향은 삼천포 지리산 밑이었는데…" 라며 고향 얘기를 꺼낼 때는 표정마저 앳된 소녀의 모습이 됐다. 인터뷰 내내 먹을 것을 그리도 많이 내왔는데도 더 줄 것이 없나, 더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다. 독일에서 산 세월이 더 길지언정 한국인의 따스한 '정'은 그대로인 그녀들이다.

파독 간호사들이 독일에 간 이유는 생각보다 꽤나 다양했다. 물론 그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 돈을 벌기 위해 갔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지만, 더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도 여러 명이다. 실제로 3년이라는 계약 기간 동안 병원 근무를 하고, 계약 연장 대신 성악가로, 한의사로, 식품 사업가로 변신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 또 정년퇴직할 나이가 한참 지났지만 병원 측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 달에 절반은 출근을 하고 있는 간호사도 있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한국 간호사가 독일 간호사보다 일을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파독 간호사들이 정년퇴직을 안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독일살이'를 지탱한 힘은?

타국의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우선 말이 통하지 않았다. 병원 근무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독일어 공부에 매진했다. 처음에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제대로 먹지를 못해 체중도 많이 줄었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당한 날도 많았다. 그렇게 힘든데 왜 포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파독 간호사들은 모두 비슷한 답변을 했다. "내가 잘못하면 나 혼자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나라가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열심히 했지요."

독일에 간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50년, 그 길고 고단한 '독일살이'를 지금까지 지탱해준 힘은 '한국인'이라는 자긍심, 그리고 '간호사'라는 자부심이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독일이라는 더 큰 세상으로 뛰어든 파독 간호사들의 용기와 열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녀들의 이야기가 소중한 역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주었으면 좋겠다.

당신의 전성기를 찾아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김혜민 PD | 라디오센터 뉴스제작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못 본 그 꽃"

고은 시인의 시 한편이 가슴을 울린다면 당신은 인생의 후반기를 생각해야하는 '중년'이다.

목표를 정하고 올라가기만 했던 내 인생. 이제 내려올 때를 생각하며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50+들을 위한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새 DJ 방송인 이익선씨를 만나봤다.

월 : 당신의 주치의 (건강상담)
화 : 문제는 화(火)병이야! (관계상담)
수 : 똑!똑! 50+재테크 (재무상담)
목 : 감성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금 : 노답을 찾아주는 사람 (노찾사)

Q. 〈당신의 전성기,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소감은?

정말 입고 싶던 옷을 찾은 느낌입니다. 매일 스튜디오에서 50+ 청취자분들을 만나는 일이 제게는 따뜻한 햇빛을 쐬는 광합성과 같아요.

Q. 우리나라 여성 최초 기상케스터로 시작해 〈연예가중계〉 〈시네마천국〉등 굵직굵직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어느 날, 재미 삼아 기억에 남는대로 진행하거니 고정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을 세어보니 50개가 넘더군요. 그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제 청춘을 바쳐 일했던 KBS '뉴스광장'은 캐스터로서 14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던 프로라 남다르고, EBS의 '시네마 천국'은 초대 MC 역할을 맡은 데다 94년 당시 EBS 최초로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라 자랑스럽습니다. 라디오로는 이계진 선생님과 진행했던 '라디오로 여는 세상'이 사람과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프로로 기억됩니다. 나열하기 시작하니 자꾸 느네요^^

Q. 그렇다면 이익선씨의 전성기는 언제인가요?

나이를 의식한 적이 없었고 일이 줄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속상하다기 보다는 '지금 이만한 건 진짜 행운이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지요. 사실 소속 기획사 없이 혼자서 프리로 뛰는 여성 방송인 중에서 저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그러니 진짜 행운이지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을 맡고 있는 지금은 여성으로서 방송인으로서,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껏 성숙해진 시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Q. 이익선씨에게 새로운 전성기를 안겨준 방송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힘겹고 외롭지만 알고 보면 박수 받아 마땅한 이 시대 중, 장년층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중년 기살리는 편파방송이기도 합니다^^

Q.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DJ 이익선씨의 50+이후의 삶이 궁금해지네요.

제 인생의 목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인 할머니'가 되는 거에요.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신이 납니다. 일과 가정, 건강과 봉사에 공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50세 이후엔 좀 더 매력 있어질 것 같습니다.^^

Q. 건강하고 활기차게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젊은 사람이 꿈꾸고 활력있게 지내는 것보다, 중년 이후에 꿈을 놓지 않고 자꾸 지쳐가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 뭔가를 도모하는 일은 몇 곱절 힘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분은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 그런 분들을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돼 드릴께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많이 사랑해주세요~

50+를 위한 편파방송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 _ FM 94.5MHz 월~금 매일 오전 10시10분~11시
- 제작 _ 김혜민
- 진행 _ 이익선
- 작가 _ 신은정

YTN 1분 드라마

병맛날씨 더 비기닝

김수현 기상캐스터 | 웨더라이프국 과학기상팀

"SNS용 날씨 만들면 재밌지 않겠어?"
〈병맛날씨〉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몇 주 전 채문석 본부장님, 김진두 팀장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SNS용 날씨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SNS를 활용한 날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딱히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SNS에 올릴 내용이라면 짧고 간단한 것, 그리고 '병맛' (병맛 유래가 병신 맛이라는 설이 있지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끌리는, 계속 관심이 가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러운 내용을 담아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병맛'은? 바로 연기였습니다.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연기자로 활동했고, 영화를 전공한 데다 YTN에 들어와서는 날씨와 연기를 섞어 방송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단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병맛'같은 느낌을 낼 수 있을까? 에 대한 답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는 영상은 바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였습니다. 일반 영상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영상… 대사 없이도 웃을 수 있는 영상… 그래 이거다!

첫 녹화는 방소윤 캐스터의 도움으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파일럿 형식으로 만든 영상이었지만 본부장님과 팀장님께서 좋다고 말씀해주시며 바로 SNS에 올리라고 하셨고, 칭찬을 받으니 더 잘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고 있는 기상캐스터 방소윤씨와 박희원씨, 유다현씨에게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모두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병맛 날씨〉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콘티 없는 촬영

〈병맛 날씨〉의 촬영은 대본이나 콘티 없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어떤 정보를 담을지 팀원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낼지 제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해오는데, 촬영 당일 팀원들의 반응을 보고 그날 촬영 내용을 결정합니다. 다음 누가 무슨 배역을 맡는지에 따라 애드리브와, 개그 요소가 가미가 되고,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며 내용이 수정되는데요. 즉 콘티가 없다보니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저 역시 영상에 대한 고집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재밌게, 더 신선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맛 날씨〉는 나의 것!

〈병맛 날씨〉가 많은 관심을 받는 데는 팀원 모두가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병맛 날씨〉를 기획했고,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팀원들 또한 기대 이상으로 협조적이어서 회를 거듭할 수록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으며, 제가 놓치는 부분들까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망가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면 정말로 주인 의식이 없이는 그렇게 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본부장님과 팀장님 역시 〈병맛 날씨〉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신데요. 직접 SNS에 홍보를 해주시고 있고, 저희 팀장님은 하지 않던 페이스북에 가입하시며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제가 밋밋한 센스있게 그림을 주는 기상그래픽팀의 이강규 선배를 비롯해서 〈병맛 날씨〉가 더 많은 매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사방팔방 홍보해 주는 김하나 PD! 모두가 〈병맛 날씨〉는 나의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마다의 자리에서 〈병맛 날씨〉를 멋지게 채워주는 분들이 계셔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숫자에 담은 〈런웨이〉

나는 대한민국 코미디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드린 기억까지는 없고, 그냥 가늘고 길게 코미디 프로그램을 10년째 유지해 나가면서, 능력이 닿는 한 소소한 웃음이라도 드리고자 꽤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희극인으로 소개하고 싶다.

그런 나에게 YTN 사이언스는 처음으로 진행자란 타이틀을 선물했다. 좋은 제작진과 좋은 프로그램의 취지 덕분에 내가 진행을 맡은 청년 창업 〈런웨이〉는 200회를 훌쩍 넘긴 장수 프로그램이 되었다,

현병수 개그맨 MC

나는 제작진의 동의 없이 감히 이 프로그램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다. 더 감히 이야기한다면 전국노래자랑의 송해 선생님처럼 청년 창업 〈런웨이〉를 전국창업자랑처럼 질기게 끌어가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러기에 나는 YTN의 열혈 시청자가 되기에 충분했고, 이 모습을 본 많은 개그맨 동료 선후배들은 나를 YTN 공채 개그맨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런 기회를 준 YTN 사이언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청년 창업 〈런웨이〉"는 CEO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스토리로 새로운 성공 인생을 꿈꾸고 있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감동과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미 나에게도 쓰라린 창업의 경험이 있다. 창업은 정말로 어려웠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은 결국엔 경기도 남서부의 있는 도시, 한마디로 오산이었다. 준비 없는 창업을 했던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기엔 관절염보다 더 지긋지긋했고, 핸드폰 3년 약정보다 더욱 지겨웠다. 이후 결과는 크림스프처럼 건질게 없었고, 보리밥처럼 뒤끝이 안 좋았고, 결국 나는 유모차처럼 마냥 애만 태웠다. 결국 나는 창업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실패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는 이론을 깨닫고, 색종이 접듯이 과감하게 모든 걸 접어버린 후 다시는 이 복잡한 길을 안 가겠다고 다짐했었다. 결국 창업은 한마디로 계이름의 '레' 였던 것이다. '도'를 넘었고, '미' 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나는 본업인 방송을 했을 뿐인데, 수많은 창업가 대표님들을 만나서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다시 창업전선에 뛰어가고 싶은 예비창업가로서의 강한 욕구가 생겨버렸는지… 나도 모르게 솟는 아이템에 머리를 쥐어 짜고 있었다. 세상에 놀라운 아이디어는 넘친다. 하지만 부족한 것은 그것을 실행시키는 의지의 차이라고 본다. 결국 청년 창업 〈런웨이〉를 통해 내게도 참 많은 변화가 생겼다. 지금은 실행하려는 의지로 차근차근 준비해 새로운 창업가가 되어 소소하지만 잘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청년창업정책위원'이란 직책까지 받았다.

더욱 값진 것은 런웨이를 통해 런우회란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대표님들과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소통을 나눈다는 것이다. 참 다양한 출연자들을 가만히 옆에서 보고 듣기만 했는데… 내가 만난 출연자들은 "늘 성격은 얼굴에서, 본심은 태도에서,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200회가 지난 이 시점에 그간 출연자들. 많고 다양한 대표님들을 보면서 느낀 점을 0부터 10까지의 숫자에 담아 보려 한다.

청년 창업 〈런웨이〉에 출연하셨던 많은 대표님들은,

0감을 얻기 위해 늘 고민했고,
1할 때는 정말 열정으로 승부했고,
2득이 되는 트렌드에 집중했고,
3가야 할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했고,
4람이 결국 재산이었고,
5로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노력했고,
6신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고,
7칠치 못한 옷차림으로 다니질 않았고,
8랑귀처럼 들리는 소문에 선입견을 갖지 않았고,
9조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애썼고,
10사리 자신의 경험과 적성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날 그날이 마지막날인 것처럼 매일을 살아왔던 대표님들, 그리고 한주 한주가 최종회인 것처럼 혼란스럽고 바쁜 제작진들, 이들이 청년 창업 〈런웨이〉의 진정한 주인공들이다.

세상의 중심에서 열정을 외치다!

이상곤 기자 | 보도국 전국부 대전지국

장마와 무더위, 태풍의 계절인 여름입니다. 지난해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충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했는데요. 올해는 7월의 시작과 함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열정으로 똘똘 뭉친 대전지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YTN 경력기자로 입사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가뭄에 구제역, 최근에는 방사선사 몰래카메라 사건 등 다양한 취재 현장에서 YTN의 열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전 지국은 대전과 충남, 세종 등 3개 광역자치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과학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몰려 있는 대덕특구가 있고, 대전과 세종에는 정부청사도 자리 잡고 있어 각종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정부 현안과 관련된 아이템 발굴에도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전지국 식구는 모두 10명입니다.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시던 박동일 선배가 지국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지국을 잠시 떠나실 때는 혼자셨는데 돌아올 때는 오디오맨과 함께 둘이 돼 돌아왔습니다. 대박이죠?

충청취재본부장이면서 대전지국장이신 이정우 선배의 리포트 제작 열정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도 강철 체력으로 취재 현장을 누비며 마이크를 잡고 계십니다. 지역 내 먹거리뿐만 아니라 지국에서 중심을 잡고 계시는 '중원의 사령관'이십니다.

15개월 만에 세종청사에서 대전으로 복귀하신 박동일 선배는 '페북스타'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짱짱한 인맥을 자랑하고 계신데요. '좋아요'가 평균 200건을 훌쩍 넘길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도경희 선배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일명 '자출족' 이십니다. 무더위와 비바람에도 왕복 20km에 가까운 거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자전거로 출퇴근 하십니다. 허벅지를 직접 만져보지 못했지만 엄청 단단하겠죠?

은은한 커피 한 잔과 클래식 음악이 잘 어울리는 장영한 선배. 바쁜 취재 일정 속에서도 지국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살림꾼'입니다. 일에 대한 추진력은 기본. 한 발 앞선 시각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센스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국 막내 기자 타이틀을 저에게 넘겨주신 이문석 선배. 육아 휴직까지 다녀오신 자칭 '대전 미남' 인데요. 잘생긴(?) 만큼이나 마음 씀씀이도 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지국 식구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전기사 정상호 선배는 '운전 베테랑' 이십니다. 내비게이션보다 빠른 길로 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촌 들녘에서 귀신같이 농민들을 찾아냅니다.

지국의 평균 신장을 한층 끌어 올려준 강태우 운전기사는 지난겨울부터 보도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아내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고, 의외(?)의 인맥까지 자랑하는 '매력남'입니다.

세종에서 박동일 선배와 함께 지국에 온 임재백 오디오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까지 미룬 '열혈 청년'입니다. 취재현장에서 함께 부딪혀 본 일은 아직 적지만,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꽃미남 미모의 유태주 오디오맨은 카메라 촬영에 편집까지 못하는 일이 없는 '만능 재주꾼'입니다. TVU 중계를 준비할 때마다 손과 발이 되어주고, 시간 날 때는 애프터이펙트를 혼자 독학하며 젊음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대전지국 식구들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기사를 위해 오늘도 취재 현장으로 향합니다.

하트 뿅뿅뿅~♥

결국은 사람이다!

김솔희 | 기획조정실 인사팀

무더위가 유난히도 빨리 찾아온 6월의 주말, 시험장에는 긴장 속에 초조하게 앉아있는 얼굴들이 있다. 한편에서는 그들만큼이나 상기된 표정으로, 하지만 조용히 그 얼굴들을 살피고 꼼꼼히 일정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6월을 전후한 석달, 인사팀은 YTN의 오늘을 떠받치고 내일을 이끌어 갈 새로운 가족들을 찾기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결국은 사람이다. 조직을 흥하게 하는 것도 망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고 가장 큰 자산이다." 인사팀은 이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의 탄생에서 마무리까지 뒤꼍에서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아하고 있다.

한 사람을 YTN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만큼 채용은 조직의 출발점으로 HR(human resource)업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YTN조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 선발하고 교육하고 평가해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기 위해 인사팀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다.

2016년 YTN은 시대 변화에 맞춰 더욱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 선발 방식에 큰 변화를 줬다. 신입기자의 경우 서류전형 때 동영상 클립을 첨부하게 해 비디오, 오디오 적합성을 먼저 확인했고 카메라 테스트도 단순 읽기에서 토론형 주제를 준 뒤 즉석 답변하는 능력까지 평가했다. 이어 5배수 정도로 추려진 합격자들을 상대로 5일간의 강도 높은 현장 실무 평가 기간을 둬 함께 일할 평사원들이 직접 평가하게 했고 여기에 간부들의 실무 면접을 통해 인성 등을 심층적으로 살핀 뒤 최종 임원 면접을 하도록 했다. 이번 신입사원 선발 방식의 변화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YTN 스터디 그룹'까지 만들게 했다고 한다. 경력사원의 경우에도 실무 면접을 신설해 능력과 '사람 됨됨이'를 꼼꼼히 살피도록 했고 특히 기자들의 경우 이전 직장이나 출입처에서 어떻게 일하고 평가받았는지를 일일이 파악해 최종 임원 면접에서 중요 참고 요소가 되도록 했다.

HR에서 채용만큼 중요한 게 교육훈련이다. 부단한 교육만이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를 리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팀은 올해 차장대우, 부장대우 승진자 교육, 부장급 등 간부 리더십 교육을 신설 또는 보강해 잇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신입, 경력기자들의 경우에는 디지털,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공유하고 YTN의 DNA를 심을 수 있는 교육을 예정해 두고 있다. 앞으로 인사팀은 구성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으로 각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재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려고 한다.

우리 인사팀의 오래된 고민의 중심에는 평가 제도가 있다. 그 고민은 "구성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그 평가가 신뢰받아야한다"는 뻔하지만 당연한 명제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이 간단한 명제를 충족시킬 완벽한 평가 제도는 불행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명제에 가까이 가는 제도를 만들려고 많은 고민을 한다. 당장은 평가자의 개인적 호불호나 정성적 판단에 의한 자의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기록에 의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를 고민하고 있다. 물론 평가의 목적은 구성원을 옥죄고 능력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당한 보상으로 개인적으로는 건전한 동기부여에 직무 만족감을 높게 하고 조직차원에서는 '적소적재'의 배치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직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여기에 맞게 관련 제도도 부단하게 변해야 한다. 인사팀은 채용, 교육, 평가, 보상과 관련된 제도들의 완결성을 위해 비록 그 일이 '시지프의 운명' 같다 할지라도 묵묵히 헤쳐 나가야 할 소명을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성원 가족들이 인사팀을 다양한 생각과 판단, 이해 충돌을 풀어내는 '소통의 광장', '통합의 교차로'로 이용해 주길 기대한다.

이 달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5월

특종상

금상 _ 〈정운호 게이트〉 관련 단독 연속 보도

이 종 원 _ 스포츠부

한 연 희 _ 사회부

최 두 희 _ 사회부

동상 _ 〈대형 여객기 충돌 위기〉 보도

최 기 성 _ 사회부

김 태 민 _ 사회부

공로상 • 동상 _ 식권시스템 개선 장 혜 려 _ 총무팀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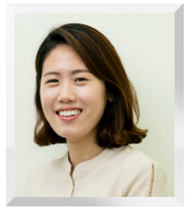
특종상

금상 _ 〈갑의 횡포〉 연속 보도

박 조 원 _ 기획제작팀

홍 성 노 _ 기획제작팀

주 혜 민 _ 기획제작팀


서 영 미 _ 기획제작팀

은상 _ 〈박유천 성폭행 의혹〉 연속 보도

조 성 호 _ 사회부

차 유 정 _ 사회부

박 서 경 _ 사회부

류 석 규 _ 영상취재1부

동상 _ 〈롯데그룹 수사〉 관련 연속 보도

한 연 희 _ 사회부

최 두 희 _ 사회부

최 윤 석 _ 영상취재1부

동상 _ 〈알고 보니 '모야모야' 희귀병〉

이 승 배 _ 전국부

이 상 엽 _ 영상취재1부

• 선정 이유

– 5월 특종상 금상은 단순 사건으로 끝날 수 있던 사안을 단독 연속 보도를 통해 비리게이트로 전환시키며 특정 계층의 부조리 구조를 파헤쳤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 동상의 경우 관계당국의 비협조 속에서도 집요한 취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가치가 평가됐습니다.

– 공로상은 단독 신청된 건인데 기존 종이 식권의 불편과 부당 사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행정업무 개선의 모범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 6월 특종상 금상은 정부, 공공기관의 갑질행태와 억울한 피해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다수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 은상의 경우 한류스타의 단순 1회성 비행 논란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었던 사안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동상을 수상한 롯데그룹 수사의 경우 일련의 단독 보도로 전방위 수사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이끌었다는 점에서, 또 모야모야병 여대생 이야기는 차분하고 세밀한 취재로 이면에 숨겨진 안타까운 사연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필그림1 (Pens 1) 259 x 581cm oil on canvas 1995-1998

건축적 질서 속 혼돈과 욕망의 세계

홍경한 | 미술평론가

작가 홍경택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연필'이다. 워낙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미지인데다가 2007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8 ~ 9억 원에 낙찰되면서 그의 시장성을 입증한 작품 역시 연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예술세계는 매우 넓다. 1990년대 시작된 '정물' 연작에서부터 홍경택 특유의 일상성이 스며든 '서재' 시리즈, 음악이라는 기호적인 관점이 녹아 있는 '훵케스트라'(funkchestra)', 설치작품인 '코쿤'에 이르기까지 그의 눈길 아래 포박된 범주는 의외로 좁지 않다. 심지어 붉은 장막 사이에 두 해골이 마주보고 서 있는 2008년 작품 'The End'와 같은 그림에선 종교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분위기마저 풍긴다.

이 중 눈에 띄는 연작은 12점짜리 대작 '훵케스트라'이다. '훵케스트라'라는 '펑크(Funk)'와 '오케스트라(Orchestra)'를 조합하여 만든 단어다. 마릴린 먼로, 존 레넌, 반 고흐, 프린스 등 각각의 예술장르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비롯해 'AIDS'처럼 시대적 문제의식을 담은 텍스트가 음악의 가사와 어우러진 '훵케스트라'는 타락한 세계와 성스러운 세계가 공존하는 곳이며, 순간과 영원, 천박함과 고급스러움, 죽음마저 소비하는 '동시대성'이 배어 있는 작품이다.

실제로 동시대성은 홍경택의 '훵케스트라'를 지정하는 키워드다. 이것은 한마디로 찰나의 지속과 지속적 찰나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풀이하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매순간 충돌하고 갈등하는 삶 속에서 위안을 찾고 안식을 갈구하는 혼돈의 세상을 강렬한 색과 단순한 패턴으로 규칙화한 것이랄 수 있다.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휘발적인 시대성을 건축적 질서 내부로 끌어들여 영원성을 부여한 작품이 '훵케스트라'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볍고도 무거우며 다소 격렬한 펑크와 점잖은 오케스트라의 혼음을 시각이미지로 구현한 '훵케스트라'는 동시대성을 가장 적절하게 정의하는 작품이다. 기호와 상징을 통한 대중문화적 속성과 비판적 시선이 교차하는 연작이기도 하다. 때문에 곧잘 홍경택의 실제적 대표작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그렇다고 그의 또 다른 주요작품인 '연필' 시리즈를 단지 시장성으로만 한정하기엔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그 '연필' 내부엔 그의 화사(畵史)를 필연적으로 관통하는 존재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짙게 묻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성이란 일차적으로 '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텃밭으로 한다.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에게 존재란 어떤 선택을 제한, 제약하는 구체적 상황 속에 위치함을 지시한다. 그래서 한편으론 현존재(Dasein)에 관한 작가의 가치관 혹은 철학이 녹아 있다 해도 무리는 없다. 이와 같은 철학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엔 오랜 무명생활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투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형형색색 폭발하듯 분출하는 연필의 형상은 작가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어떤 선택을 제한, 제약하는 구체적 상황' 자체와 맞닿는다.

죽음의 승리 – (The Triumph of Death) acrylic & oil on linen 200x200 cm 2016

홍경택 _ HONG, KYUNG TAEK

-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개인전 _ 순례–홍경택의 부조리극장, 파크뷰 갤러리, 홍콩 / 이인성 미술상 수상 기념전,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구 / Green Green Grass 페리지갤러리, 서울 등 11회
- 단체전 _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22인의 작업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 경기 아트 프로젝트–경기잡가 ,경기도미술관, 안산 / 시민과 함께 하는 광복 70년 위대한 흐름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싱가포르 오픈 미디어 아트 페스티발 2015, The Moment of Karma:Gillman Barracks, 싱가폴 등 국내외 아트페어 및 그룹전 다수
- 작품소장 _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일민미술관, 아모레 퍼시픽, 농심, 두산갤러리 등 다수

존재에 관한 또 하나는 '욕망'과 연계된다. 이는 나를 비롯한 우리가 자기의 본질이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창조'해온 그 무엇도 온전히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진 않을뿐더러 되레 방해물이 되어 진정한 자기를 상실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나를 나로써 존재하도록 만들지만, 온전히 나를 나로써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욕망'의 아이러니이다.

화면을 가로질러 분출하듯 나아가는 연필은 그의 그림에 자주 등장했던 촛대나 해골, 성배와 서재, 몇몇 동물과 유명인들의 초상과 같은 선상에서 욕망의 코드로 자리한다. 근작 '반추'와 같은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골프채나 골프장에서 드러나는 작업실과 고비용 공간 간 상충되고 이질적인 욕망, 에베레스트를 병풍처럼 두름으로써 정복의 욕망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연필' 시리즈는 산발하는 '연필'이나 '여섯 개의 하늘'에서 마냥 둥글게 뭉쳐진 덩어리로써의 '연필'이라는 시각이미지에 한정된 결론을 전부라 여기기엔 부족한 지점이 있다. 그보단 그의 '연필' 연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우린 무엇을 남기며, 또 얻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연필이 지닌 이미지와 비이미지 간 관계처럼 화려함 뒤 보이지 않는 허무함을 말하고 있다는 게 옳은 해석이다.

물론 욕망을 풀어내는 과정과 그 끝에 도달했을 때의 무력감, 진정한 인간상은 무엇이고 어디서 근본적인 자아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자답도 이 '연필' 시리즈가 가리키는 하나의 종착지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Library–Paradise 162x130cm oil on linen 2016

Library–Paradise 259x194cm oil on linen 2016

Funchestra installation view 국립현대미술관 130X162 (12pcs) oil on linen

6월 26일, 우리♥결혼했어요

갓 내린 커피와 감미로운 음악,
그리고 책이 함께 하는 소소한 신혼의 일상을 꿈 꾼다.
하지만 <나의 사랑 나의 신부>처럼? 이란 질문에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답하고,
결혼 생활을 위해 자신의 소비 패턴부터 바꾸겠다고 말하는 '당찬 신부'가 된 앵커 안보라.
결혼이라는 터닝포인트를 맞은 그녀에게 사랑스런 새 신부가 된 각오를 들어본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취재 | **최보영** 방송작가

황정하 ♥ 안보라 하늘에서 쉬고 계시는 아빠 안평국 · 엄마 박명숙 | 친정오빠 안정필 · 새언니 장순미 · 조카 안예주 | 시아버지 황수원 · 시어머니 김현남 | 형님 황미애 · 조성길 | 사회_오동건 앵커 | 축사_삼성 썬더스 주희정 · 김주완 · 김슬기 | 축가_삼성썬더스 김태형 · 임동섭 · 최수현 · 이호현 · 앵커 박석원 · 김민호 | Photo _이기주 감독 | Video _정명기 | 청첩장 _디자이너 류종원 | Make Up & Hair_골림 (도산점) 명아 원장 & 민영 부원장 | Dress_신비주 | Studio 느와르블랑 | 플래너_H 웨딩 정혜영 | 도움 주신 분들_주세원 · 정상정 · 이미지 · 김지예 · 노은지 · 박상연 · 윤효진 · 권도영 · 조준희 (사장님 아님) 코지퍼니처 홍승원 | 후원_YTN대표이사 조준희 · 상무 이홍렬 · 경영본부장 김익진 · 보도본부장 상수종 · 감사 김광석 · 기획조정실장 김호성 · 앵커실장 송경철

Q. 결혼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현재 기분은?

지금 시각이 (결혼 전 날인) 저녁 8시 31분인데 신혼여행 때 가져갈 짐도 아직 못 꾸리고 있네요. 하하하. 기분이 어떻다기 보다는 짐 만큼은 얼른 싸야지… 하는 생각?

Q. 청혼은 누가 먼저 하셨는지?

청혼… 신랑이 언젠가는 하겠죠? 좀 늦게할 수도 있는 거니까ㅠ

Q. 남편과 함께 꿈꾸는 일상은?

주말부부라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랑이나 저나 집에서 편히 쉬는 걸 최고라 여깁니다. 저희 부부가 '사랑방'으로 부르는 신혼집 카페 방에서 갓 내린 커피에, 음질 좋은 스피커로 음악 들으며 책 보고 있으면 무릉도원 저리 가라입니다.

Q. 결혼을 하면 싱글일 때 경험 못한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데, 각오 한마디.

제가 결혼하면서 되뇌인 게,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 목숨이 위태롭고 정신병이 생길 것 같은 수준이 아니면 그냥 인정하자, 다짐했어요.

Q. 발레, 베이킹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해 왔는데 앞으로 남편과 공유하고 싶은 취미는?

나이 들어서도 인생을 즐기면서 웃으며 살고 싶어서 취미를 풍부하게 갖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제 뜻과 같아요. 아무래도 직업이 선수단 트레이너이다 보니 저랑 같이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하하.

Q. 결혼한다면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처럼'?

아무래도 영화는 환상이고,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꼭 영화 하나를 들어야 한다면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도, 전 항상 남편 앞에서 예쁜 옷을 곱게 차려 입고, 양탈을 부렸으면 좋겠고요. 신랑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꺾어다 주며 "오다 주웠다" 시크하게 말하지만, 마음만은 뜨거운 남자로 늙었으면 합니다. 영화 결론과는 다르게, 저는 신랑보다 딱 하루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오래오래 제 곁에 있으라 했습니다.

Q. 결혼 생활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시는지지?

음… 소비 패턴을 새롭게 짜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하하. 신랑은 꼼꼼하고 알뜰합니다. 반면 저는, 카드 할부는 절대 안 하지만, 사고 싶은 건 돈을 모아서 삽니다. 하나 꽂힌 게 있으면 좋아하는 지인들에게도 다 사서 드립니다. 신랑이 차마 말은 못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하하. 알뜰하면서도 베푸는 것을 잊지 않는 새댁이 되려 합니다.

Q. "결혼은 OO이다" 라는 주제로 1분 즉석 스피치를 한다면?

결혼은 일상이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어르신께 들은 말인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쑥 났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상이 우리를 지배하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일상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상만 쫓다가는 결혼생활이 참상으로 끝나기 십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 환상, 참상 다 말고, 일상을 제일로 여기겠습니다.

Q.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남편에게 바라는 점은?

결혼이라는 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을 했다고, 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지금처럼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선배들 말이, 결혼하면 연애 때 하던 것의 딱 절반만큼만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처럼만 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더 바랄 것이 생기면, 차라리 제가 바뀔게요. 흑흑

Q. 앞으로 앵커로서의 꿈은 무엇인가요?

꿈이 있다면, 방송을 마치는 그 날까지, 최대한 덜 실수하고, 최대한 더 많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눈을 감는 마지막 날까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앵커로서의 안보라도 마찬가지고요. ^^

86·88 꿈나무, 그리고 서울올림픽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장소협찬 | 뮤직 갤러리 〈Rheehall〉
02_745_0202

유석현 앵커 | 국민신문고

[추천 음반]

'황제'는 뛰어난 앙상블을 자랑하는 아마데우스 4중주단(그라모폰)의 연주를 많이 추천한다. 결합곡이 모차르트의 현악4중주 가운데 가장 널리 연주되는 17번 B플랫 장조 '사냥'이어서 더욱 좋다. '세레나데'와 '종달새'는 아마데우스 4중주단과 함께 이탈리아 현악4중주단(필립스)의 연주를 추천한다. 세레나데 2악장의 부드럽고 유연한 연주, 종달새 1악장의 낭랑한 연주가 듣는 이를 즐겁게 한다.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수습기자 땐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처럼 기억한다. 84년 가을에 시작된 나의 수습 시절에도 강서구(그땐 양천구가 없었다) 목동 일대 세입자들이 아파트 건설을 앞두고 이전 대책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여 강서구 부구청장을 납치한 사건을 시작으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가스압력을 높게 공급해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 단독주택 수십 채에서 가스 폭발이 있었고, 대학생들이 소공동 롯데호텔 건너편에 있던 미국 문화원을 점거해 며칠간 톱뉴스를 장식했다.

이른 새벽부터 경찰서와 병원 응급실을 돌며 사건사고를 챙기고 영안실에선 유족들에게 사망 원인을 물어야 하는 암울한(?) 생활을 몇 달 하다가 갑자기 체육부 수습으로 바뀌어 하루는 태릉빙상장에서 아이스하키를, 다음날은 장충체육관에서 농구대잔치를 구경한 뒤 선배가 사주는 소주에 족발을 먹으며 지내니 그야말로 별천지가 따로 없었다. 수습이 끝나고 국제부에 배치된 후에도 자기가 맡은 종목의 주요 경기가 있는 날엔 국제부 근무는 때려치우고 경기장으로 달려갔다. '86 88 꿈나무' 기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울올림픽 기간에는 종목에 관계없이 데스크의 지시로 여기 저기 경기장을 옮겨다니며 진짜 체육부 기자라도 된 듯이 기사를 썼다. 덕분에 미국과 소련의 남자 배구 결승전(한양대 체육관), 브라질과 소련의 축구 결승전(잠실 종합운동장)에 이은 폐회식까지 현장에서 보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유도의 경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선수는 하형주였다. 84년 LA올림픽에서 통쾌한 한판승을 이어가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하형주는 86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의 스가이를 꺾고 금메달을 따내 서울올림픽에서도 당연히 금메달을 선물해 줄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하형주는 1회전에서 벨기에의 반드왈에게 가로누르기 한판으로 허무하게 무너졌다. 반드왈이 80년 모스크바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강호였음을 감안해도 하형주의 패배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옆에 한국말을 잘하는 마이니치신문 체육부 기자가 앉아 있었는데 "하형주가 졌네요"하며 아쉬워하자 "당연하지요"라며 그가 아시안게임 이후 어떻게 생활했고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는 등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나를 놀라게했다. 슬쩍 보니 그는 국내 스포츠신문에 실린 하형주 관련 기사는 모두 스크랩해 갖고 있었다.

올림픽 시상식 때는 금메달리스트의 국가가 연주되는데 1위를 차지한 구 소련의 국가를 가장 많이 듣다보니 나중엔 멜로디가 친숙해질 정도였고 한국도 무려 4위에 올라 심심치 않게 애국가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 귀에 가장 친근하게 느껴진 국가는 당시 서독의 국가였다. 서독 국가는 요제프 하이든(1732~1809)이 1797년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황제를 위해 작곡한 '황제 찬가'의 선율을 딴 곡으로 1922년 에베르트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이 독일 국가로 공식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도 국가로 불리고 있다.

하이든은 황제 찬가의 선율을 현악4중주 77번의 2악장에 그대로 사용했고 이 때문에 77번 현악4중주는 '황제'라는 애칭이 생기게 됐다.

•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제77번 C장조 '황제'

하이든의 대표적인 현악4중주의 하나로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3악장 미뉴엣, 4악장 프레스토로 전체 길이는 20여 분. 2악장이 황제 찬가 선율을 주제로 하는 변주곡으로 돼있다. 이 곡 외에 17번 '세레나데'(2악장이 유명한 세레나데 악곡임)와 63번 '종달새'(1악장이 종달새의 울음소리 같아 붙여진 애칭)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현악 4중주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낚시는 강규처럼~'

취재 _ **최재용** 차장 | 커뮤니케이션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주인공을 닮고 싶었던 것일까? 운명처럼 마주친 '플라이 낚시'에 흠뻑 빠진 이후로, 매주 주말이 다가오면 물고기들이 눈 앞에 어른거리는 통에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는 웨더라이프국 기상그래픽팀의 이강규 사원.

하지만 커뮤니케이션팀은 그가 전국의 계곡을 돌며 물고기들에게 접근해 몬태나의 브래드 피트를 사칭하며 환심을 산 후, 가짜 미끼로 그들을 농락해 왔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입수했다. 그를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일당백 편집장, 지난 주말 발새 차를 몰아 그가 자주 출몰한다는 강원도의 한 계곡으로 향했다.

그를 유인하려고 풀어둔 산천어 냄새 때문이었을까? 예상보다 빨리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란한 손기술로 물고기를 낚고, 곧바로 풀어주는 행위를 무한 반복하는 희대의 '물고기 희롱 현장'을 포착하는 순간이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플라이 낚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2년 5월 중순 쯤, 친하게 지내던 동생의 권유로 얼떨결에 안동 도산서원 앞의 여울에 갔어요. 그런데 그 곳에서 영화에서나 봤던 플라이 낚시를 실제로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이후로 플라이 낚시의 매력에 푹 빠졌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의 12시간이 넘도록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고 낚시를 했는데 처음 물고기를 잡았을 때의 그 짜릿한 손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플라이 낚시가 무엇인가요?

플라이 낚시는 강도래, 날벌레, 하루살이와 같은 수생곤충처럼 생긴 모양의 미끼로 물고기를 유혹해서 잡는 제물 낚시의 일종입니다. 살아있는 미끼 대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게 다른 낚시들과 특히 다른 점입니다.

플라이 낚시를 하면 무엇이 가장 좋은지?

주말에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면서 계곡과 강계에서 물고기를 잡다보면 막혀 있던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리죠. 특히 40cm가 넘는 송어가 미끼를 물고 물 위로 차오르며 점프를 할 때 낚싯대로 전해져 오는 그 손맛…!! 그 느낌은 한번 맛보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ㅎㅎ 그런데 많은 분들이 플라이 낚시를 한다고 하면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물론 플라이 낚시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그런 줄 알았었죠. 하지만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는 것이 바로 플라이 낚시가 갖고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언젠가 플라이 낚시를 하게 된다면 가족들, 특히 어린 자녀들을 꼭 데리고 가보세요. 살아있는 교육현장이 따로 없답니다.

플라이 낚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취미 활동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초기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꼭 필요한 장비들로는 웨이더 (방수복), 낚시대, 릴, 리더, 티펫, 미끼 등이 있습니다. 플라이 낚시를 제대로 즐기려면 우선 1~2 시간 정도 캐스팅 (낚시를 떨어뜨려 물 속에 잠기게 한 뒤 작은 물고기의 움직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낚시질)을 익히고, 미끼를 꿰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전에 들어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플라이 낚시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녀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 할 필요가 없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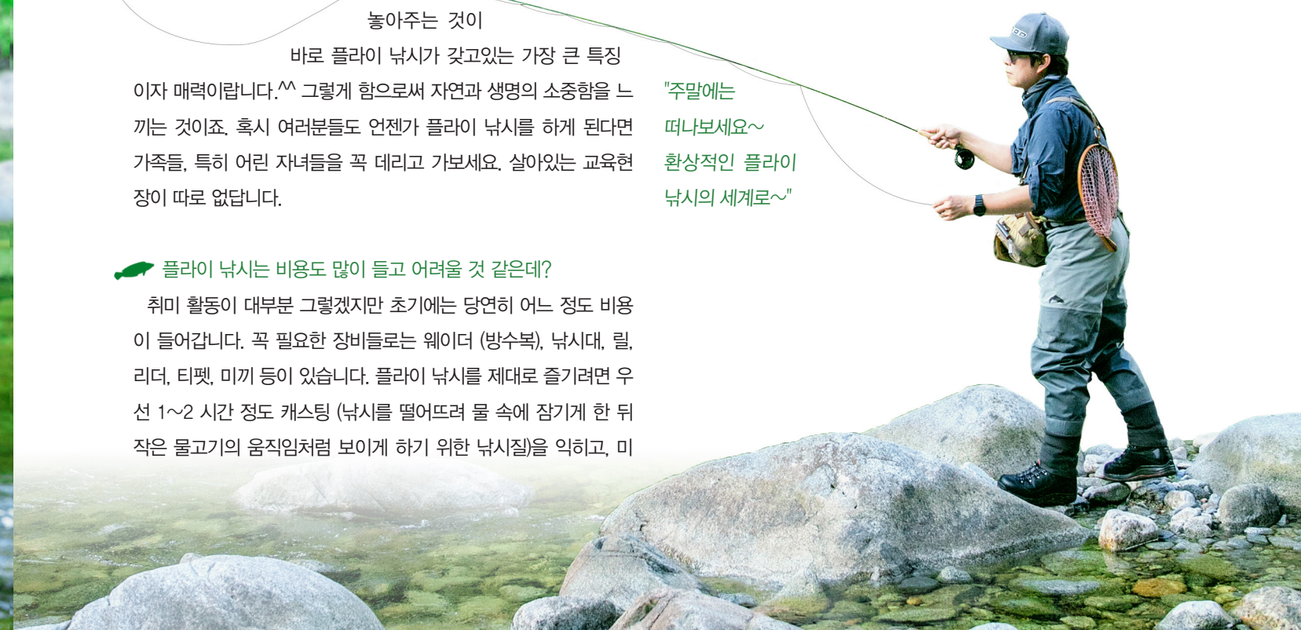
주로 잡히는 어종과 플라이 낚시를 하기에 좋은 장소는?

열목어, 산천어, 송어, 갈겨니 등등 다양합니다. 이런 물고기들은 대부분 강원도 등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동안 웬만한 곳은 거의 다녀보았는데 특히 인제 내린천 (열목어), 양양 갈천 (산천어), 삼척 덕풍계곡 (산천어), 춘천 소양강 (브라운 송어, 곤들매기), 정선 동남천 (송어), 그리고 바로 이곳 고성 북천 (산천어, 갈겨니) 등이 플라이 낚시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랍니다.

끝으로 플라이 낚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일찍 일어나는 새가 가장 먼저 벌레를 잡아 먹는다는 속담처럼 이른 아침에 계곡이나 강으로 나가보세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물고기들도 아침 무렵에 허기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때 입질이 가장 활발하답니다. 요즘에는 낚시 인구가 부쩍 늘어나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바로 플라이 낚시랍니다. 혹시 주말에 즐길만한 취미거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웨더라이프국의 이강규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플라이 낚시에 관해서 제가 알고있는 모든 것들을 성심성의껏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떠나보세요~ 환상적인 플라이 낚시의 세계로~"



카툰 : **최재용** 차장 | 커뮤니케이션팀

속보보다 중요한 뉴스의 가치

뉴스룸

THE NEWSROOM

최광희 | 영화평론가

필자가 방송국 사회부 기자로 일할 때의 일화다. 벌써 16년 전의 일이다. 당시 시민 단체는 총선을 앞두고 낙선 운동을 펼칠 국회의원 후보들의 리스트를 발표했다. 시민 단체의 발표가 총선에 미칠 파장이 컸기에 언론들은 그들이 발표할 리스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때, 내가 일하던 방송국도 현장을 생중계했다.

낙선 리스트 발표 시점은 오전 11시. 내게 주어진 임무는 중계석에 앉아 있는 선배들에게 시민 단체가 배포하는 낙선 리스트를 건네 받아 최대한 빨리 전달하는 것이었다. 시민 단체 간사가 낙선 리스트 책자를 탁자 위에 올려 놓았고, 맨 앞에 줄을 선 석간 신문 기자가 "우리는 11시가 마감이에요. 그러니 좀 빨리 주세요." 하면서 애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사의 태도는 단호했다. "약속된 대로 정확히 11시에 배포하겠습니다."

절박한 석간 신문 기자는 리스트 꾸러미를 향해 몸을 던졌고, 간사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 사이에 책자 하나가 꾸러미에서 살짝 삐져나와 있는 게 내 눈에 들어왔다. 석간 기자의 바로 뒤에 서 있던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팔을 뻗었다. 그리고 삐져나온 책자를 쭉 빼내는 데 성공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 나는 냅다 중계석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막 중계를 시작한 선배 기자들이 내가 빼내온 책자를 전광석화와도 같은 속도로 펼치고는 낙선 후보 리스트를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쟁 같은 중계를 마치고 난 뒤, 회사에 돌아오니 사회부 데스크를 비롯한 내근 기자들이 모두 기립 박수를 보냈다. 데스크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적들보다 10초나 빨랐어! 무려 10초나 빨랐다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속보 경쟁에서 이긴 일등공신이었던 나는, 어떤 인물들이 낙선 리스트에 포함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미국의 HBO에서 지난 2012년부터 방영한 드라마 〈뉴스룸〉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애리조나 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열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건이 벌어진다. 방송국은 즉시 속보 체제로 전환한다. 뉴스의 초점은 현장에 있던 가브리엘 기포드 하원의원이 목숨을 잃었느냐의 여부였다. 그런데 미국 공영 라디오인 NPR을 비롯해 FOX, CNN, MSNBC 등의 유력 방송 언론들이 모두 기포드 의원이 사망했다고 전한다.

만약 한국의 방송 뉴스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사망 사실을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유보할까? 아니면 타 방송사의 소식을 받아 그대로 전달할까?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도 그런 갈등 상황이 벌어진다. 뉴스 스튜디오로 쳐들어간 간부가 30초의 브레이크 타임 동안 앵커에게 사망 소식을 전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시청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앵커는 뉴스 피디에게 의견을 묻는다. 그러자 그런 이렇게 대답한다. "사망 진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지요. 뉴스가 아니라." 앵커는 이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리고 보도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기포드 하원의원이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현장 기자가 기포드 의원이 사망하지 않았으며 현재 수술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온다. 뉴스룸은 이 사실을 즉각 앵커에게 전한다. 이 상징적인 장면은 방송 뉴스가 속보 경쟁 속에서 어떻게 정확한 팩트를 전하느냐에 대한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속보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성이다. 속보 경쟁에 매몰되다 보면 오보를 남발하기 십상이다.

나는 앞서 소개한 〈뉴스룸〉의 장면을 보면서 한국 방송 언론의 자화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누가 낙선 리스트에 올랐는지도 모른 채 그저 '돌격 앞으로'의 명령에 따르는 속보 전쟁의 보병으로 출전했던,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렸다.

생명을 구한 백의의 천사들

간호학도 박세현 씨와 간호사 김혜민 씨를 만나다.

취재 _ **최영아** | YTN PLUS 디지털뉴스팀

절체절명의 순간, 거짓말처럼 나타나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슈퍼 히어로'. 하지만 영화 속에만 히어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YTN 제보영상〉을 보면 평범하지만 위대한 '시민 영웅들', 우리 주변의 '진짜 영웅들'을 만날 수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운 상상을 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니 나 스스로가 '영웅'이 되는 모습을, 언젠가는 누구라도 '영웅'이 되는 그 순간을…

쓰러진 남성의 심장을 뛰게 하라!

박세현(19, 경동대학교 원주메디컬캠퍼스 간호학과 학생)

지난 5월 8일 서울 DMC역 플랫폼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그 곳에 박세현 양이 있었다.

간호학도인 박세현 양은 주저하지 않고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가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목숨이 자칫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 내 일처럼 달려간 박세현 양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 남성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제보영상이 YTN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되면서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박세현 양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전했다.

"순간적으로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쩌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옆집 사는 내 이웃일 수도 하는 마음이었어요. 작은 일이라도, 무엇이라도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예요"

"당시에는 제 이야기가 뉴스로 소개가 될 줄은, 또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특히 SNS가 무섭더라고요. 뉴스가 퍼져나가는 걸 보고 놀라웠어요. 이렇게까지 알려지는 것이 맞나 싶었어요. 일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 민망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감사해요"

평범한 일상을 살던 박세현 양에게 이번 일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누구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뉴스의 주인공일 수 있다는 것도 새로웠다.

"많은 분들이 YTN 뉴스로 제 소식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 담임 선생님도 영상으로 보셨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하셨어요. 자랑스럽다고 말씀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어요"

"YTN 앱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이 제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 주위에서 벌어진 일상이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예전 같으면 스치듯 지나갔던 풍경도 조금 더 관찰하게 되고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박세현 양은 지난 현충일에 우리사회 내일의 희망을 상징하는 '나라사랑큰나무' 배지를 대통령에게 받았다. 그 자리에서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할 것 같다. 작은 용기만 필요하다" 면서 웃음을 지어보였다.

열혈 간호사! 불타는 버스로 뛰어들다!

김혜민(26, 소아응급의료센터 간호사)

지난 5월 31일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이때 불이 붙은 버스 운전석에 몸이 낀 기사를 구하기 위해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전에 뛰어든 사람이 있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김혜민 씨다.

당시 망설임 없이 불타는 버스로 뛰어드는 김혜민 씨의 모습이 한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기사가 구조 된 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버스는 그대로 불길에 휩싸였다.

해당 영상은 YTN 뉴스와 제보영상으로 소개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상황이라면 모두가 용감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김혜민 씨는 빨리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했다.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진이었기 때문에 망설일 수가 없었단다. 그러면서 다른 시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다며 공을 돌렸다.

"지하철 선로 위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고 누군가 뛰어들었다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막연하게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랬었거든요. 제가 응급실 간호사이지만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 막상 눈앞에 이런 일이 닥치니까 움직이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용감했다. 장했다' 말해주셔서 아직도 얼떨떨해요. 사고가 났을 때 몇 달 만에 집에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아 집에 못 내려가는구나' 이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친척분들을 뵙게 됐죠. 뉴스로 보셨다면서 다들 병문안을 직접 와주셨거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김혜민씨는 SNS의 영향력을 또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전하면서, 평소 YTN 페이스북을 구독하고 있었지만 본인의 이야기가 뉴스로 전해지는 과정을 보며 더 놀라웠다고 말했다.

"제 이야기가 YTN에 나와서 깜짝 놀랐죠. 요즘은 사실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서 뉴스를 잘 보지 않잖아요. SNS에서는 지나가면서도 뉴스를 볼 수 있으니까 수시로 보게 돼요. 만약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셨어도 영상으로 소개됐다면 보고 좋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최근 YTN이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뉴스를 전해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김혜민 씨는 '영웅'이라는 호칭이 무겁다며, 좋은 마음이 전달됐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요즘은 어린 친구들도 SNS를 많이 하니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해요. 제 사촌 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도 이제 불 나는 버스에 뛰어들어야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시 상황들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지지 않게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해낸 두 사람이지만 "누구나 그랬을 것이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곳곳의 숨은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였다.

YTN 이모저모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원 복리 증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 _ 5. 12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콘텐츠 교류 및 학생복지 증진
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 _ 5. 16

서울디지털대학교 콘텐츠 교류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 _ 5. 17

오로라월드 YTN 〈남산서울타워 공동 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 _ 5. 23

5종 세트 2천 만 뷰 돌파 기념 자축연 _ 6. 8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전시, 공연 및 문화 융합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식 _ 6. 13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 복리 증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 _ 6. 14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 _ 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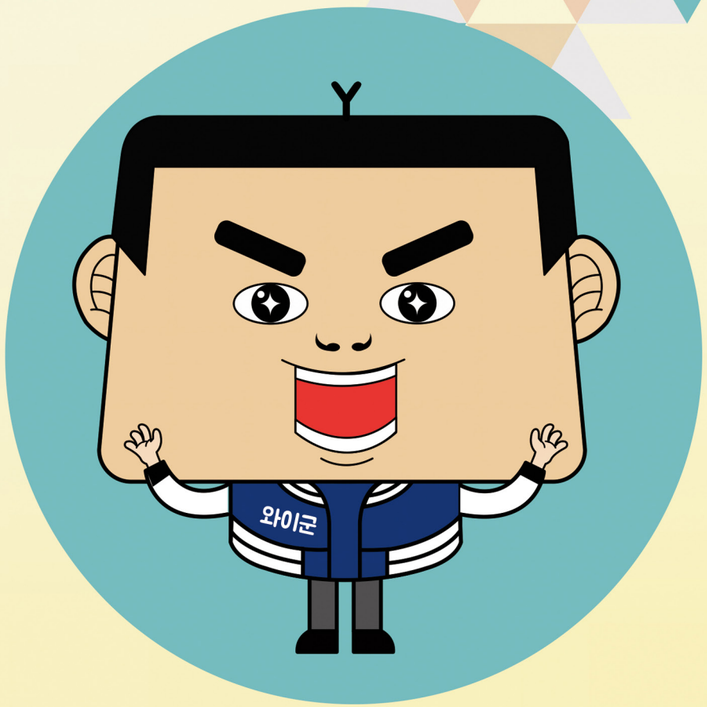
문의 02.398.8188

삼성,LG,HP 노트북 살 땐?

오직 대학생만 가능한 할인 이야기!

교육할인스토어

와이군 닷컴 (www.ygoon.com)



YTN
CAMPUS
캠퍼스24
이 시대 대학문화의 트렌드를 만듭니다.
젊음과 열정을 응원하는 캠퍼스24!
본방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재방 월요일 새벽 1시 35분
MC 조윤경 & 김성원
기획 박만희 연출 이형철 작가 정모아